

“교육이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강연

민주시민교육 ‘정신·창조·소통’ 제시
‘전남교육청 헌법교육 강화’ 깊은 공감
“12·3 계엄 초기 해제 5·18정신 덕분”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교육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시민이 되고, 민주시민 공동체의 일원이 돼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문형배(사진)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전남교육청,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특강 연사로 나서 교육의 헌법적 의미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전했다.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연단에 오른 문 전 대행은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헌법에 명시된 게 1948년이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교육의 힘을 믿은 이들의 뜻이 담긴 결정이었다. 이처럼 교육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부는 교육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충성을 강



조하는 교육은 권위주의적이며, 기본권과 자율성을 키우는 교육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며 “교육은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라고 역설했다. 문 전 대행은 민주시민교육의 세 가지 가치로 ‘정신(魂), 창조(創), 소통(通)’을 제시하며 자신의 인생 면면에서 발견한 인권 감수성과 창의적 사고 그리고 타인과 연결되는 소통의 힘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이어진 전남학생회의와의 토크 콘서트에서는 학생들과 교육과 헌법, 민주주의를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학생들은 ▲소통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남학생회의 참여 학생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방법 ▲민주주의 기본 원칙, 자유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등 심도있는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문 전 대행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시민은 공동체 속에서 권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서로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존재다. 경쟁과 입시에 매몰된 교육으로 공존을 배울 수 없다”며 “진정한 교육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며, 토론과 소

통이 그 출발점”이라고 부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전남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헌법교육 강화 정책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 문 전 대행은 “지난 12·3 비상계엄의 초기 해제는 5·18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번 특강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도민 등 약 400명이 참석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김다이기자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총동창회, 완도서 체험 행사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총동창회(회장 이정배)는 지난 14일 완도를 방문, 수목원과 해양자유센터 등에서 트레킹과 다양한 체험 행사를 했다.

이정배 회장과 회원 등 30여명은 완도수목원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숲속트레킹을 하고 최근 치유 관광으로 각광 받는 해양자유센터를 찾아 해수와 해조류 껍질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치유와 관광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완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정배 총동창회장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휴식과 쉼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프로그램 마련했다”고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솔기자

광주매일신문, 서남지역아동센터 NIE 3차 교육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 교육 사업에 선정돼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지난 13일 광주 서구 서남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신문 만들기 실기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1, 2차 순회교육 때 배웠던 기사의 특성과 기사쓰기 실제 사례들을 신문 편집 디자인의 원리를 이용해 디자인하는 방법들을 배웠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표성운(백운초 6)·김유은(백운초 5)·문승연(백운초 4) 학생은 직접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목과 사진을 넣어 보기도 했다.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신문을 공모, 시상식을 갖는다.

/박희종기자

코레일 전남본부, 비상대응 종합 연습·훈련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는 15일 “여름철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 종합 연습·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코레일 전남본부, 여주시청,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 여수보건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총 12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낙석으로 여객열차 궤도 이탈 및 객실 내 화재 발생에 따른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초기 인명 구조 조치 ▲2차 피해 확산 방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전개됐다.



김진태 코레일 전남본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위기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며 “철도 이용객의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훈련과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정기자

함평서 ‘전남도 정신건강 화합한마당’ 성료

전남도는 지난 13일 함평문화체육회관에서 ‘2025년 전남도 정신건강화합한마당’을 열어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사회 적응 능력과 연대감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22개 시·군 정신장애인과 가족,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제24회째인 정신건강 화합한마당은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했으며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력 향상과 가족 간 교류 활성화, 정신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과 지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김재정기자



행사는 전남지사 유공자 표창 수여, 문화공연, 체육대회, 부대행사(포토존·카페테리아 등) 등 순으로 개최됐다. 특히 올해는 참여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포토존과 카페테리아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문권욱 건강증진과장은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일상에서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신건강 사업을 지속 추진해 ‘마음을 나누는 전남, 함께 만드는 건강한 전남’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혜경 서광병원장, 전남대 발전기금 기부

류혜경(광주서광병원장·사진 왼쪽) 전남대 총동창회장이 최근 전남대학교 발전기금 2억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로 류 회장의 누적 기부액은 5억원을 넘어섰다.

류 회장은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1985) 및 박사(1988) 과정을 수료한 후 현재 서광병원장과 학교법인 인성학원 이사장으로 지역 의료 발전에 헌신해오고 있다. 특히 내과 전문의로서 환자 중심의 따뜻한 진료 철학을 바탕으로 수십년간 지역 의료 현장에 신뢰를 쌓아왔다.

류혜경 전남대 총동창회장은 “그동안 앞만 보며 살아왔던 것 같다. 지인들이 이제 좀 쉬라고 할 정도였다”며 “이렇게 모은 돈을 모교 발전에 쓸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동문으로서, 지역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기부자로서 모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류 회장님의 남다른 헌신에 깊이 감사하다”며 “소중한 뜻이 대학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다이기자



전남서부보훈지청-롯데아울렛 남악점 ‘보훈가족 나들이 행사’ 후원금 전달

국가보훈부 전남서부보훈지청은 최근 청사 2층 일강전실에서 롯데아울렛 남악점과 ‘보훈가족 나들이 행사’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롯데아울렛 남악점은 매년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후원해오고 있다.

이번 후원은 평소바람 활동이 어려웠던 재가복지보훈대상자의 나들이 행사를 위해 마련됐다.

김대홍 롯데아울렛 남악점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가유공자 예우 확산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용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은 “올해는 광복 80주년, 6·25전쟁 제70주년 이 되는 뜻깊은 해로 매년 보훈가족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롯데아울렛 남악점에 깊이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국가유공자를 예우는 보훈문화가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주전남혈액원, ‘헌혈자의날’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지난 13일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6·14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 헌혈 캠페인을 전개하며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산지구협의회 소속 봉사원 9명과 혈액원 직원 8명이 참여해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근 헌혈의집 광주송정역센터 방문을 유도하는 거리 홍보 활동을 펼쳤다.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은 “광주 5개 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봉사원들 매주 수요일마다 6개 헌혈의집에서 헌혈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헌혈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봉사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생명나눔의 숨은 영웅들이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